

옛 전남도청 분수대 지하 시민광장 본격화

광주시, 지하 흡기동 철거 비용 등 확보 절차 착수 5·18시민홍보관·광주청년센터 운영 방안도 추진

옛 전남도청 분수대 지하 공간을 시민 광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광주시는 10일 옛 전남도청 분수대 지하 기둥(내부는 흙)을 철거하는 방안이 향후 시민 광장 조성에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철거 비용 마련 등 후속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 아래의 시민 광장 조성 계획은 광주시가 지난해 진행된 '광주시정 제안'에서 최우선 제안으로 선

정된 구상이었다.

분수대 밑 지하공간에 공연이나 토론 등이 가능한 시민 광장을 조성하자는 계획이 핵심 내용이다. 또 연간 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방문객을 금남지하상가로 유인해 상가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문화전당·지하상가·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중심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왔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후 해당 제안과 관련, 건설기법 등 기술적 문제에 대한 검토

토를 거쳐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분수대 지하상가 공간이 갖는 5·18 역사성과 상징성 등을 감안한 조치다.

광주시는 이같은 점을 반영해 금남지하상가와 문화전당을 가로막고 있는 흡기동(직경 30.38m·높이 10m)이 시민 광장 조성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45억원의 예산을 확보, 철거하기로 했다. 대형 흡기동은 금남지하상가를 '금남로구간'과 '동구청구간'으로 가르는 장애물로 자리잡은 상태다.

시는 아울러 해당 지하 공간에 5월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부각시키는 취지로 5·18 시민홍보관(사업비 20억)을 설치하는 계획도 수립, 예산 확보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휴·폐업 상태인 점포 14곳 가운데 11곳

(188.4㎡) 부지에 광주청년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같은 계획을 추진하는 데 보상비 등을 감안하면 73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정부에 지원을 요청키로 했다.

예산 확보 절차가 마무리되면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세부적인 공사 계획을 수립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광장 조성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 "국내·외 시공 사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한편,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한 뒤 신중하게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배기자 bhj@kwangju.co.kr



베를린 필하모닉스링과르넷 콘서트

광주일보사가 주최한 베를린필하모닉스링과르넷 콘서트가 지난 9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피아니스트 조재혁이 협연한 이날 공연에서는 베토벤, 브람스 작품과 함께 '아리랑', '그리운 금강산'을 선사했다. 조재혁씨는 올해 호남 예술제 경연곡인 쇼팽의 작품을 앙코르로 들려줬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혈관내 완전 분해되는 스텐트 세계 첫 개발

전남대병원 심장질환 연구센터 염증반응 적어 매우 획기적 관상동맥 질환자 치료 효과

전남대병원이 세계 최초로 혈관 내에서 완전 분해되는 획기적인 생분해성 약물용출 관상동맥 스텐트(이하 PCL스텐트)를 개발했다.

전남대병원 심장질환 특성화 연구센터(센터장 정명호 순환기내과 교수)가 한국

기계연구원 박수아 박사팀과의 공동 연구를 진행한 결과, 세포증식억제제와 함께 PLGA와 PEG 중합체로 구성된 PCL스텐트를 3D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개발했다.

스텐트 연구개발 내용은 SCI 논문 '머티리얼스 레터스(Materials Letters)' 2월호에 발표됐다.

이번에 개발된 PCL스텐트는 심장혈관에 시술 후 6~9개월이 지나면 체내에 완전히 흡수돼 없어지는 생체적합형 생분해성 스텐트로서, 연구팀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특히 혈관

에 그대로 남아있는 기존의 스텐트와 비교하면 가히 획기적인 개발이라 할 수 있다.

전남대병원 심장질환 특성화 연구센터는 돼지 심장혈관의 이식 실험을 통해 PCL스텐트가 신생내막 증식을 억제하고 염증반응도 적어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또한 PCL스텐트 시술환자는 앞으로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되며, 스텐트 시술 직후 치료·내시경검사·수술 등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명호 교수는 "PCL스텐트 개발은 향후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등의 관상동맥질환자들을 위한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전남대병원 심장질환특성화연구센터는 앞으로도 세계적인 관상동맥 스텐트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명호 교수는 다음달 24일부터 3일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제79차 일본순환기학회에서 특강한다.

일본 의학계에서 가장 큰 학회인 일본심장학회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특강에서 정명호 교수는 전남대병원이 주관하는 '한국인 급성심근경색증 등록연구(KAMIR)'에 대한 성공적인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50 달뜨기 23:38
해질 18:36 달지기 09:44

낮부터 추위 풀려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 많고, 동부 내륙에는 늦은 밤 한때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맑음	-3/10
목포	맑음	-1/8
여수	맑음	-1/9
나주	맑음	-5/11
완도	구름많음	-1/9
구례	구름많고 눈	-4/10
강진	맑은 뒤 흐림	-2/9
해남	맑은 뒤 흐림	-2/10
장성	맑음	-4/9

보성	성	맑음	-3/9
순천	맑은 뒤 흐림		-1/11
영광	맑은 뒤 흐림		-4/10
진도	맑은 뒤 흐림		-1/9
군산	맑음		-4/9
남원	맑음		-3/8
남원	맑은 뒤 흐림		-6/11
홍산도	맑은 뒤 흐림		2/8



비타 날씨

오전		오후	
서해안	서~북서 1.0~2.5	서~북서 1.0~2.5	
남해안	서~북서 2.0~3.0	서~북서 1.5~3.0	
남해안(동)	북서~북 1.0~2.0	서~북서 0.5~1.5	
서부	북서~북 1.5~2.5	서~북서 1.0~2.0	
서부(사)	북서~북 1.5~3.0	서~북 1.0~2.0	

오전		오후	
목포	05:20	10:31	
	17:27	22:44	
여수	12:08	05:59	
	00:00	18:06	

생활지수

수면	40
운동	30
빨래	70

주간 날씨

12(목)	13(금)	14(토)	15(일)	16(월)	17(화)	18(수)
☀	☀	☀	☀	☀	☀	☀
-3/13	3/12	2/15	5/15	3/18	5/16	4/16



광주지법법원장 김주현은 10일 오전 광주시 동구 지산동 한 식당에서 광주지역 68개 중·고등학교와 '법관 1학교 멘토링 체결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관 1학교 멘토링' 제도는 2013년 처음 시행된 것으로, 올해는 광주지법 법관 대부분이 참여해 가장 많은 25개 고교·43개 중학교와 연계해 활동할 계획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프란치스코 교황 "세월호 문제 어떻게 됐나요?"

한국 주교단에 다시 관심 표명

지난해 방한 때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청을 찾은 한국 천주교 주교단에 다시 세월호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10일 천주교 주교회의에 따르면 교황은 9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교황청 클레멘스 8세홀에서 사도좌(교황청) 정기방문 중인 한국 주교단을 만났다.

교황은 첫 질문으로 세월호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물었다고 주교회의 측은 전했다.

교황은 지난해 방한 당시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았고 뺨뺨한 일정 속에서도 네 차례에 걸쳐 세월호 유족을 만나 위로하는 등 세월호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면담에는 김희중 대주교와 염수정 추기경(서울대교구장) 등 한국 주교 14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남원시의회
http://council.namwon.go.kr

행복한 시민의 삶, 남원시의회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모두는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